



❖ 전문가 칼럼

중국 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REACH 상식 10문 10답 / 1

❖ 경제통상 뉴스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 광둥성 경제성장 둔화 / 5

대만-중국, 三通 시대 개막 / 12

中, 소형가전 히트상품 / 18

中,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과 창업 붐 / 24

中, 4/4분기 석유화학공업 시장전망 / 30

❖ 투자진출 A to Z

중국 합자기업 매각에 따른 분배금 송금 / 34

장애인 고용관련 벌금부과에 따른 대응책 / 36

기업 인수관련 문의 / 38

[공지사항] OIS(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안내문 / 41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 광저우센터 : (86-20) 8334-0052
- 다롄센터 : (86-411) 8253-0051
-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 각 센터 내 설치

전문가 칼럼

중국 투자기업이 알아야 할 REACH 상식 10문 10답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중국지사장 김창성 (hplcms@ktr.or.kr)

1. 우리 제품이 REACH에 해당되나요?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모두 REACH에 대상입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무엇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화학물질은 연간 유럽으로 수출량이 1톤 이상이면 등록이 필요합니다. 혼합물은 혼합물 자체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물질 별로 연간 1톤 이상 유럽으로 수출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완제품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그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없는 경우, 완제품 안에 고위험성물질(SVHC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s)이 완제품 중량 대비 0.1%이상, 연간 1톤 이상 유럽으로 수출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힘든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할 것을 권합니다.

2. 완제품에서 의도적 배출과 비의도적 배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완제품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완제품의 주기능이 아닌 경우 의도적 배출이라고 합니다. 향기 나는 지우개의 경우 지우개의 주기능은 잘못 쓴 것을 지우는 것이고, 향기는 보조기능이므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은 의도적

배출에 해당됩니다. 완제품에서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의도적 배출입니다. 온도계에서 수은은 비의도적 배출에 해당됩니다. 완제품에서 등록과 신고는 이미 그 용도로 등록 또는 신고된 경우는 다시 등록 또는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기존물질과 신규물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물질은 다음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 1) EINECS 목록에 있는 물질 : EC번호는 2또는 3으로 시작
- 2) Directive 67/548/EEC의 제8조 1항의 첫단락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본 규정에서 정한 고분자의 정의를 만족하지 않는 물질(NLP) : EC번호는 5로 시작
- 3) 만약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가 이것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EU 역내 또는 1995년 1월 1일 혹은 2004년 5월 1일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에서 REACH 발효 전 15년 내에 제조되었으나 시장출시가 되지 않은 물질

신규물질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 1) ELINCS 목록에 있는 물질 : EC번호는 4로 시작
- 2) 앞으로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 새로운 물질

기존물질은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을 하시면 물질의 수출량에 따라 등록이 최대 2018년까지 유예됩니다. 신규물질은 본등록을 하여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4. 기존물질인지 신규물질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기존물질인지 신규물질인지는 유럽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ecb.jrc.ec.europa.eu/esi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EC번호, CAS번호, 물질명, 구조식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5. 사전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사전등록에는 1) 화학물질의 IUPAC명칭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 2) EC번호, 3) CAS번호 4) CMR category 1, 2에 해당여부 5) R50-53에 해당여부 6) 수출량 7) 예상등록기한 8) read-across 또는 QSAR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 CMR물질 : 발암성, 돌연변이성, 유독재생물질

* R50-53 물질 : 수생환경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

6.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나요?

기준에 연간 1톤 이상으로 연속적으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거나, 수출량이 연간 1톤이 넘지 않는 화학물질은 향후 유럽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출량에 따라 1018년까지 등록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량에 따른 등록 유예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1년이 남지 않은 경우 본등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7. 완제품 내의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수출할 수 있나요?

완제품은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그 화학물질만 사전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없는 경우 사전등록이나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제품 내에 고위험성물질(SVHC)가 완제품 중량 기준 0.1%이상, 연간 1톤 이상 유럽으로 수출될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위험성물질은 내년 하반기에 목록이 발표될 예정이며 신고는 2011년 6월 1일부터입니다.

8. 한국에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 경우, 한국공장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중국공장에서는 사전등록이 필요 없지 않나요?

한국의 공장과 중국의 공장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공장에서 사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의 공장에서 사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사전등록은 누가 하나요?

사전등록은 REACH 법령에 유럽에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유럽 내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이용하여 사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내 법인이 없는 경우,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를 선임하여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10. 중국 내 기업은 중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해서 사전등록을 해야 하나요?

중국 내 기업은 꼭 중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해서 사전등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유럽의 유일대리인이나, 국내에서 활동 중이 한국의 유일대리인을 통하여 사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은 기업과 유일대리인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한국의 유일대리인을 통하여 사전등록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끝/

경제통상 뉴스

중국 제조업의 중심지, 광둥성 경제성장 둔화

- 투자, 소비, 수출 감소로 인한 GDP 성장폭 15년 이래 가장 낮아 -
- 국내 생산비용 상승, 해외 수요 감소로 인해 직격탄 맞아 -

KOTRA 홍콩KBC 박은균 과장(hanguo@kotra.or.kr)

□ 중국 성장엔진, 광둥성 성장 둔화

○ 3사분기, 15년 이래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 기록

- 개혁 개방 30년 이래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광둥성이 최근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있음.
- 중국 광둥성 통계국이 발표한 3사분기 경제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1~9월까지 광둥성의 경제 성장률은 10.4%로 두자릿수 성장을 달성했지만 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4.3%p가 감소했으며, 이는 전 중국에서도 가장 높은 감소 폭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14.4%의 경제 성장을 한 것에 비하면 충격적인 수치임.
- 지역산업의 핵심인 수출의 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했으며, 광둥성 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섬. 수출이 감소한 분야는 섬유산업, 완구산업, 플라스틱 산업이며, 이 중 섬유산업의 수출 감소는 뚜렷해 전년동기대비 30.6%나 감소했음.

○ 광둥성의 GDP 성장률 둔화

- 광둥성의 상반기 GDP는 2조53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4.3%p 감소했음.
- 이는 폭설,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차질, 인건비 및 원재료 값 상승에 의한 생산비용 증가와 미국 금융위기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광둥성 경제의 삼두마차인 투자, 소비, 수출의 증가폭이 모두 뚜렷하게 감소해 3사분기 경제지표에 그대로 반영됨.

○ 투자 및 소비 감소

- 3분기까지의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고정자산투자 총액은 6.1%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11%p 감소함. 감소요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꼽을 수 있음.
- 반면, 소비는 12.4%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0.5%p 감소함.

광둥성 1~9월 주요경제지표

항목	1~3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1~3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폭
GDP	+10.4%	-4.3p%
수출총액	+13.5%	-10.7p%
사회고정자산투자총액	+6.1%	-11.0p%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12.4%	-0.5p%

자료원 : 광둥성 홈페이지

□ 광둥성 기업 도산 속출

○ 경영난으로 기업 도산 붐

- 최근 광둥성 지역의 제조업 특히 가공무역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음.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증치세 환급을 인하, 인민폐 절상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기업들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도산에 이르게 하고 있음.
- 세계 금융위기라는 대외적인 요건 외에도 중국 내부적으로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중소기업들은 결국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밖에 없어, 일반은행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음.
- 홍콩 언론에 따르면 광둥성 둥관시의 공장 공실률이 최근 28%에 달하며, 이는 작년 11%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 공장 임대료도 33% 정도 하락했다고 함.
- 광둥성 업계에서는 최근 1년 사이에 도산한 기업이 약 2000개에 이를 것이라 보고 있음. 전 세계 완구의 70%를 제조하는 광둥성 완구기업들 중 수백 개가 현재 도산했으며, 향후 2년 내에 1800여 개가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광둥성에서 40년간 금속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 사장은 현재 상황이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물론 사스 때보다도 어렵다고 함.

중소기업 주요 파산 원인
인민폐 평가절상, 수출경쟁력 하락
미국금융위기, 해외시장 수요 감소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한 자금난
중국 노동법 발효, 인건비 상승
유가 및 기타 원재료 값 상승

○ 임금 체불에 따른 노동자 시위

-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량 감소와 자금난으로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임금이나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와 거래업체의 시위가 광둥성 지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이 개입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최근 둥관시의 한 홍콩계 전자업체가 수백여 개의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도산하자 이들 거래업체들은 둥관시 정부 청사 앞에서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임.
- 광둥성에는 기업 도산 도미노현상으로 약 2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음.

□ 광둥성 최대 전시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광교회) 역대 최저 성과

○ 교역량 전년대비 약 30% 감소

- 올해 광교회 교역량은 208억1000만 달러로 작년 374억50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하락했음.
- 광교회 개막 첫날 해외 바이어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음. 교역회 관련자에 의하면 올해 총 교역량은 전년대비 최소 30% 감소할 것이라고 함.

○ 미국, 유럽 바이어 방문자 수 급감

-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 유럽 바이어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줄었음.
- 미국 및 유럽의 수출량은 중국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전체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감소해 중국기업들도 가격을 할인할 수 밖에 없다고 함.

○ 업체 수주량 전년대비 30~40% 감소

- 제104회 중국수출입상품 교역회는 2351개사가 참가해 작년보다 13.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나, 거래 실적은 감소함. 전자제품 교역량은 전년대비 13% 감소했으며, 특히 완구부문은 30% 이상 급감했음.
- 한편, 해외 바이어들의 구매의욕 저하로 그나마 거래되는 물량도 제 가격에 거래되지 못해 중국 내 수출업체들이 내수 공략으로 전략을 바꿨으며, 중국 상무부 또한 이들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함.



전년 같지 않은 광交会 현장

□ 중국 정부의 대책

○ 전문 인력 파견 실태 조사

- 중국 당국은 사태 파악을 위해 기업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주장 삼각주 지역에 연구조사인력을 급히 파견했으며, 단순한 자금난 해결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 차원에서 전문 고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함.

○ 인민은행 0.27% 금리 인하

- 인민은행은 단기간 안에 세 차례 금리인하를 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함. 일 년 기한의 예금과 대출의 기준 금리 모두 0.27% 인하했으며, 장기 예금의 금리인하폭은 상당히 컸음.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전과 다른 ‘비대칭 금리 인하’를 실시한 것은 ‘예금 장기화’를 억제시키고, 더 많은 자금을 시장으로 이끌어내 내수를 자극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힘.
- 이외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 및 지출 감소를 우려해, 제2 주택에 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보임.

○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 지난해 6월 중국 정부는 지난 2~3년 동안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2821 품목에 대한 증치세 환급률을 폐지하거나 하향 조정함. 특히 의류·완구·방직품의 경우, 증치세 환급률이 13%에서 2%까지 낮춰짐.
- 하지만 최근 세계시장 침체로 인한 무역흑자폭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중국 국무원의 비준으로 11월 1일부터 노동집약형·기술 집약형·고부가가치상품의 수출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함.
- 세금 환급률 조정 대상은 총 3486종의 상품으로 총 세관 세칙의 25.8%에 달하며 정부 세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는 중국 정부가 내린 극약처방이라고 평가됨.

수출증치세 환급 조정률

상품	세금환급 조정 전	세금환급 조정 후	변동(%p)
방직품, 의류	13%	14%	+1
완구	11%	14%	+3
플라스틱제품	5%	9%	+4
가구	11% 또는 9%	13% 또는 11%	+2
생활품 및 예술 도자기	5%	11%	+6

자료원 :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 시사점

○ 광둥성 정부 재정적·제도적 지원

- 광둥성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400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공공요금 보조 및 광둥성 외곽지역으로 이전 비용 지원등에 활용할 것임. 동관시도 40억 위안을 출자해 행정 수수료 면제 등 13가지의 기업부담 감소 정책을 발표함.
- 광둥성 재정 부청장은 3억1000만 위안의 자금을 수출지원에 투자할 것이며, 그 중 1억6000만 위안은 방직·완구·플라스틱·신발류 등 7개 전통제조업 기업들을 위해 수출 세금 환급, 징수세와 환급세 간의 차액 보조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함.
- 동관 당국은 10억 위안의 산업 승격 전형기금을 마련해 기업의 전형을 지지하는 등,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광둥성 정부의 수출지원책

구분	내용
성정부수출자금지원	성 정부는 3억1000만 위안의 자금을 수출지원에 투자, 이 중 1억6000만 위안을 방직업 등 7대 전통 제조업의 일반수출 세금 환급, 납입세와 환급세 간의 차액 보조에 이용
수출세금환급처리속도가속	당국은 수출 세금 환급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원만하게 해 자금 부담을 감소
기업수출내수로의전환지원	성 정부는 ‘가이드’를 출간해 가공무역기업으로 하여금 ‘3자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내수 판매권을 획득해 내수 기업으로 전환 유도
공장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선지원	동관 당국은 10억 위안을 투입해 공장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개선을 지원
동관행정납입금감면	동관 당국은 다양한 분야의 기업 행정 납입금 감면, 예)가공무역 정산 수송비 감면 등
심천세금환급으로수출장려	심천 당국은 원료수입 가공수출 장려, 재정 세수 환불을 실시, 수출기업의 자금 압력을 경감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 위안화 절상률 둔화는 기업 자금 압박 다소 완화

- 작년부터 10월까지 수출기업들에 결정적인 악재 중의 하나는 위안화 급절상이었음(약 6.7% 절상). 광둥성 기업들은 대부분 수출위주의 기업으로 위안화 급절상으로 기업 이윤이 약 15% 급감해 비즈니스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음.
- 하지만 7월부터 위안화는 1미달러당 6.8위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폭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위안화 절상률 둔화는 중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기업들의 이윤 감소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투자진출 기업, 중국의 정책변화에 주시해 사업 추진

- 내년도 중국이 8% 경제성장률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분야는 건설, 토목 등 사회기반 시설확충으로 중국 정부사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체질 개선을 위해 내 놓았던 강력한 조치들을 다소 완화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주시해야 함. 최근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1%p에서 많게는 5%p 이상 인상한 것으로 비롯해 증치세, 개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에 걸친 조정 가능성이 예상됨.
-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금을 확대해주는 조치를 추진 중이어서, 금융 관련한 조치에도 주목해야 할 것임.

자료원 : 홍콩언론종합, 광둥성 홈페이지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대만-중국, 三通 시대 개막

KOTRA 타이베이KBC 유기자(kotra.tpe@msa.hinet.net)

- 11월 3~7일,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이하 해기회)와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이하 해협회)의 2차 양안회담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 중으로, 11월 4일 이번 양안회담의 주요 협상 이슈가 체결됨에 따라 대만과 중국 간의 전면적인 삼통(三通 : 通商, 通郵, 通航을 지칭하는 용어로 양안 간 경제, 우편, 항공해운 왕래 개방을 의미) 시대가 도래함.

□ 2차 양안회담 협상 체결 주요 이슈

1. 양안 여객 전세기 확대 운행 및 항로 개편

- 기존 주말 여객 전세기에서 평일 전세기로 확대 운영
- 일일 전세기로 확대 운행됨에 따라 기존의 명절 여객 전세기는 운행을 중지함.
- 협상 체결 후 40일 이내에 발효
- 양안 여객 전세기 운행 공항
 - 대만 : 타오웬, 가오슝 샤오강, 타이중 칭첸강, 타이베이 송산, 평후 마공, 화롄, 진먼, 타이동 등 8개 공항
 - 중국 : 기존 주말 여객 전세기 운행공항 베이징, 상하이 푸둥, 광저우, 샤먼, 난징에 청두, 충칭, 항저우, 다롄, 구이린, 선전, 우한, 푸저우, 칭다오, 창사, 하이코우, 쿤밍, 시안, 선양, 톈진, 정저우 등 16개 공항 추가. 총 21개 공항
- 항공편수
 - 기존의 주말 여객 전세기 왕복편 36편 운행에서 평일(1주일 7일간) 왕복편 108편으로 확대 운행, 대만과 중국에 각각 왕복편 54편씩 배치
 - 단, 대만발 상하이(푸둥)행 항공편의 경우 왕복편 20편 배치로 한정 (기존 주말 전세기의 경우 9편으로 한정)
 - 추후 시장수요에 따라 가감 조정 가능함.

○ 항로 개편

- 기존의 일반 항로 : 홍콩에서 환승 요망
- 주말 전세기 운행 당시 개편 항로 : 홍콩비행정보구역 경유 요망(환승 생략)
- 신규 개편 항로 : 중국북부 및 남부지역행일 경우 상하이 비행정보 구역 경유

2. 양안 화물전세기 운행 개시

○ 화물 전세기 운행 공항

- 대만 : 타오웬, 가오슝 샤오강
- 중국 : 상하이 푸둥, 광저우

○ 항공편수

- 매월 왕복편 60편, 대만과 중국에 각각 왕복편 30편씩 배치
- 매년 화물 운송 성수기 시즌(매년 10~11월)에는 양안에 각각 왕복편 15편씩 추가 배치해, 화물 운송 원활성 유지

화물 및 여객 전세기 운행지역 및 항로 편성



자료원 : 교통부; 연합보 정리

3. 해운 직항

○ 협상 체결 후 40일 이내에 발효

○ 해운 직항운행 자격조건

- 대만 및 중국국적 선박, 양안의 컨테이너 선박, 외국국적 선박의 경우 이미 환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해운 직항 항구

- 대만 : 기존의 직항 항구 진먼 라오뤼, 수이itou, 마주 푸아오, 바이샤, 평후 마공을 포함해 지룽-타이베이 항구 포함, 가오슝-안핑 항구 포함, 타이중, 화롄, 마이랴오, 부다이 등 총 11개 항구
- 중국 : 단둥, 다롄, 잉코우, 탕산, 진저우, 톈진, 황화, 웨이하이, 옌타이, 룡코우, 란산, 르자오, 칭다오, 톈문강, 다핑, 상하이, 닝보, 저우산, 타이저우, 자이싱, 윈저우, 푸저우, 송시아, 닝더, 쉐저우, 자오추어, 시우위, 장저우, 샤먼, 산톈, 차오저우, 후이저우, 서코우, 옌톈, 츠완, 마완, 후먼, 광저우, 주하이, 마오밍, 잔장, 베이하이, 팡청, 톈저우, 하이코우, 산야, 양푸, 타이창, 난통, 장자강, 장인, 양저우, 창수, 창저우, 타이저우, 전장, 난징, 우후, 마안산, 지우장, 우한, 청링 등 총 63개 항구

○ 상호 조세 인센티브

- 해운업체가 양안 해운사업으로 취득한 소득은 양안 상호 간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면세(단, 대만 및 중국국적 선박에 한함.)

4. 우편 왕래 개방

○ 1988년 4월 18일 양안 간 간접 우편 왕래가 실시된 이래, 2008년 9월 말 기준 양안 간 누적 우편물량은 약 3억 여 건에 달함.

- 최근에는 인터넷 보급으로 전자우편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편물량 성장세는 정체돼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000만 건의 우편물이 왕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행 간접 우편 왕래의 경우 홍콩 또는 일본 등 제3국가를 경유해야 하며, 대만 우편물에 대한 중국 우편물 집하소 부족으로 배송기간이 길어 시간낭비가 심했음.
- 추후에는 해운 및 전세기 직항을 이용해 양안 간에 직접적으로 우편물 왕래를 실시
- 또한 양안의 우편물 집하소를 확대해 대만의 경우 기존의 타이베이, 지룽을 비롯해 가오슝, 진먼, 마주를 추가. 중국의 경우 기존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샤먼, 푸저우를 비롯해 난징, 시안, 청두를 추가함.

5. 식품 안전체제

- 올 9월경 중국 멜라민 분유 사태와 관련해 대만업체 및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위협이 가해짐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쌍방 간 즉시 통보 및 긴급 협상·사건발생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제공·가해자에 대한 수습 책임 독촉과 피해자 권익 보호 등의 식품 안전 체제를 마련함.

□ 시사점

- 양안 전세기 항로 개편에 따른 경제효과
 - 양안 전세기가 운행되기 전 대만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콩에서 환승해야 했으므로, 타이베이에서 상하이까지 비행시간은 약 5~6시간 이상 소요됨.
 - 올 7월에 주말 전세기 운행으로 홍콩비행정보구역을 경유하되 환승 수속은 생략됨에 따라, 타이베이에서 상하이까지 비행시간이 2시간 24분으로 단축된 바 있으며, 2차 양안회담으로 중국 북부 지역행 항로가 단축됨에 따라 타이베이-상하이 간 비행시간은 1시간 22분으로 단축
 - 항공사측의 추산에 따르면 연료비용이 40~45% 절감, 항공사 및 여행객의 시간 및 경비절감 규모는 매년 약 30억 대만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

○ 평일 여객 전세기 운행에 따른 경제효과

- 현행 양안 주말 전세기가 평일 전세기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대만 내 관광업계에도 기대감이 배가하고 있음.
- 대만여행협회(中華民國旅行商業同業公會全國聯合會)측은 양안 전세기 운행 확대 개편 방안 실시 후, 대만의 중국 관광객 유치규모는 현재 1일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09년도 6~7월경에는 일일 3000명까지 폭증할 것으로 기대
- 올 7월 주말 전세기 개방 이래 대만의 중국 관광객 유치규모는 약 200~400인 수준으로 목표치 1000명에 미달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추후 평일 전세기 운행으로 중국 관광객이 폭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해운 직항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

- 현행 양안 간 해상 운송의 경우 중간 지점으로 이시가키시마, 류큐 열도를 경유해야 하므로 시간 및 경비 소요가 큰 편임.
- 양안 해운 직항이 개방됨에 따라 평균 1회 출항마다 항해시간은 약 16~27시간 절감, 운송경비는 15~30% 절감, 기타 경비로 제3지 경유 비자비용까지 포함한다면 평균 1회 출항마다 약 30만 대만달러를 절감 가능한 것으로 추산
- 제3지 경유 생략에 따른 절감비용 4000만~8000만 달러(연간 출항 횟수 2000~3000)
- 운송비용 매년 8억2000만 대만달러 절감, 운송시간 기존 대비 절반 절감
- 상호 조세 인센티브로 중국측 소득세25% 및 부가가치세 17%, 대만측 소득세15~20% 및 부가가치세 5% 절감
- 상호 부가가치세 면세에 따른 대만 주요 해운업체 長榮, 陽明, 萬海 등 3개사의 평균 연간 절감비용은 약 50억8000만 대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 가오슝 항구의 물류처리량 증가 예상
- 해운 직항 운행 자격 조건과 상호 조세 인센티브 부여 대상이 양안 국적 선박으로 제한됨에 따라, 대만국적 선박 증가 예상

□ 3차 양안회담 협상 내용 미리보기

○ 3차 양안회담 개최 예정일

- 2009년 상반기

○ 양안 교류상의 질서 정립

- 범죄 척결을 위한 사법적인 연락 체제 마련
- 식품안전상의 협력 강화
- 방역 및 농산물 검역 협력

○ 금융 교류

- 은행 및 증권·선물업 금융감독협력 MOU
- 양안 간 은행 진출(법인, 지점, 주식투자 등)

○ 양안 무역 협력 정상화

- 대만기업 투자 보장
- 이중과세방지
- 양안 간 무역 분쟁 해결 체제
- 양안 간 산업 표준
- 양안 간 지적재산권 협력

○ 어업 협력

- 어업 노무 협력
- 양안 간 어업 분쟁 중재

○ 양안 간 언론·문화교류 협력 강화

○ 대만 해기회와 중국 해협회 간의 교류 증대

자료원 : 체결 협상별 협의서 전문, 연합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해협교류기금회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中, 소형가전 히트상품

- 제품별 브랜드 집중도 높게 나타나 -
- 건강, 안전 개념 도입된 소형가전 인기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 소형 가전시장 현황

○ 소형가전 시장규모 빠르게 확대

- 2008년 9월 통계에 의하면 쑤닝전기는 2007년 동기대비 80%가량 증가했으며, 오성전기 소형가전 판매액은 60% 이상 증가됨.
- 올 1~3분기 수버얼 순익은 1억54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47.12% 증가했으며, 구양그룹의 3분기 순익은 1억668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47% 증가
- 2007년 소형가전 판매액은 971억9000만 위안에 달했으며, 그 중 주방, 욕실용 소형가전 판매액은 총 판매액의 78%를 차지함.



거란스 전기오븐 중국 내 시장점유율 1위 차지

○ 향후 5년간 소형가전 판매수익 연평균 증가율 20% 웃돌 전망

- 원자재가 인상·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전업체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반해, 소형 가전제품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기업의 이윤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업계 관계자들도 소형가전 시장의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연평균 판매수익 증가율이 20% 이상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
- 중국 전자상회 루런버 부회장은 소형가전제품의 평균 이윤율이 향후 30%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힘.

□ 소형가전시장 특징

○ 대표 종합 가전업체 + 소형가전 전문 생산업체 + 외자 브랜드 3각 경쟁

- 메이디·거란스 등 중국 내 대표적인 종합가전업체들이 소형가전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지우양·푸스바오 등 소형가전 전문업체는 다년간 시장 내 지위를 공고히 확보하고 있음. 이 밖에 Panasonic, Siemens 등 외자업체들도 중국 소형가전 시장에 진입하면서 삼국지 경쟁시대 연출
- 창홍은 2007년 5억 위안이 넘는 자금을 소형가전 생산에 투자하며, 시장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메이디는 2007년 ‘건강, 친환경’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신기술 특허 주스기를 출시함.
- 지우양은 두유제조기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서기, 믹서기 등 상품시장 확장에도 나서고 있음.
- 2007년 유럽 소형가전 공급업체 1위인 프랑스 SEB는 23억1000만 위안으로 수버얼을 인수해 중국 소형가전 시장에 진출

○ 소형가전 제품별 브랜드 집중도 높게 나타나

- 제품별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높게 나타나며, 시장점유율이 1~2개 브랜드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임.

소형 가전별 주요 브랜드

소형가전 제품	주요 브랜드	시장점유율
두유제조기	지우양	80%
정수기	친위앤	56%
전기 드라이어	Philip, Panasonic 등 외국 브랜드	55%
전동 칫솔	Philip, 독일 Braun	절대 우위

남성용 전동면도기	Philip, Panasonic, 독일 Braun	59%(Philip:42%)
여성용 미용 소형가전	Philip, Panasonic	절대 우위
전기오븐	Galanz	29%

자료원 : 慧聪网 등 현지 언론 종합

○ 가전제품에 대한 신 규정 발표로 시장구조 개편 중

- 정부에서는 2006년 3월, ‘음수기 에너지 절약 인증기술 요구’, 2007년 7월, ‘가정용 가스고속 온수기 효능 한정등급’, 2008년 9월, ‘가정 취사용 전자레인지 효능 한정수치 및 에너지 효율 등급(’ 등 규정을 발표 시행함.
- 신규 표준 시행에 따라 일부 품질 미달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레인지 등 에너지 효율표준 등은 빠르면 연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임.
- 현재 로컬 소형가전생산 업체는 많지만 대부분 기술, 브랜드가 없는 중소기업 위주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는 30~40개밖에 안됨.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표준 등의 발표는 업계 구조개편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기로 인해 일부 수출형 소형가전업체 도산하기도

- 지난 10월 20일, 홍콩 바이링다 주식회사는 직원 수가 1500명에 달하는 선전공장을 폐쇄함.
- 바이링다) 선전 공장은 연평균 500만 대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해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지역에 수출했음. OEM 수출 위주로 원가,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대폭 감소되면서 용자도 어려워 도산하게 됨.
-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고 있으나, 중국 내 소형가전시장 발전이 지속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내수형 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힘.

□ 2008년 소형가전 히트상품

※ 참고사항 : 이 히트상품은 중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KOTRA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자체 선정한 것임.

	
제조사/원산지	산둥 지우양 주식회사/중국
가격대	300~900위안
기능	두유제조기
홈페이지	http://www.joyoung.com.cn/index.htm

○ 품목명 : 지우양 두유제조기

- ‘멜라민 분유’사건으로 두유제조기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쑤닝전기 체인점 판매통계에 의하면, 두유제조기 전국 1일 평균 판매량이 2000대가량이던 것이 멜라민 사건 이후에는 3000~5000대로 급증했으며, 주말 1일 평균 판매량은 1만 대를 초과함.
- 두유제조기 3대 브랜드 둥링, 메이디, 지우양의 시장점유율은 90%로 월 평균 판매량은 5만 대를 초과
- 그 중 2008년 상반기 지우양두유제조기 판매수입은 16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30% 증가돼 시장점유율은 80%에 달함.
- 2008년 9월, 국무원발전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08년 중국 소형 가전발전 추세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두유제조기는 향후 5년간 유망 산업으로 산업규모가 1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품목명 : Galanz 전기 오븐

	
제조사/원산지	광둥Galanz그룹/중국
가격대	270~800위안
기능	빵, 생선 구이 가능
홈페이지	http://www.galanz.com.cn/

- 중이강 통계에 의하면 중국 내 전기 오븐 판매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연 평균 증가율은 50%에 달했고 시장 수요는 4배로 증가됨.
- 2008년 5월의 통계에 따르면, 거란스 전기오븐 시장점유율은 28.5%로 1위를 점하고 판매량은 동기대비 15%p 증가했음.
- 전자레인지 사용에 음식 가열 시 수분 유실이 심하고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나와, 전자레인지를 대체하는 전기 오븐 수요량이 늘고 있음.

○ 품목명 : welhome 커피포트

	
제조사/원산지	상하이 welhome 전기제조유한회사/중국
가격대	258위안
기능	커피 제조
홈페이지	http://www.welhome.com.cn/

- 2006년 상하이 Welhome 소형가전 업체는 일본 산리오사와 합작해 Hello Kitty 시리즈 소형가전 상품을 출시
- Hello Kitty 시리즈 가전에는 전기오븐, 에그쿠커 등 상품을 크리스마스시즌에 맞춰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음.

○ 품목명 : 친위안 정수기

	
제조사/원산지	닝버친웬그룹/중국
가격대	860~1500위안

기능	수도 연결 정수기
홈페이지	http://www.qinyuan.cn/

- 중국 내 유명 브랜드 생수 품질문제가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이 가정용 수도 정수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현재 중국 정수기 보급률은 5%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전망이 클 것으로 예측

□ 시사점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 정수기, 소독기, 가습기 등 ‘건강시리즈’ 소형가전제품의 수요가 높게 나타남.
 - 특히 최근 중국 내 식품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직접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두유 제조기, 전기 오븐·주스기와 같은 소형가전제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2007년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403만8000대, 2006년 대비 24.4% 증가됨.
- 현재 소형가전 판매는 주로 대도시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도시 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 대도시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가전은 평균 8~9종에 불과하며, 보급률도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선진국 보급률 8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도시 소형가전시장의 발전이 이어질 것으로 조임.
 - 아울러 대도시 위주의 판매량 증가는 점차 인근 중소 위성도시로 확대될 것임. 따라서 향후 중소 도시의 유통망 확보, 제품군 개발 등이 향후 시장점유율 확대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자료원 : 小家电网, 慧聪网, 人民网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中,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과 창업 붐

- 금융위기로 귀향 농민공 빠르게 증가 -
- 귀향 농민공 창업으로 농촌 경제발전과 농촌 개혁 이끌어 -

KOTRA 청두KBC 이영준 관장(ctuktc@kotra.or.kr)

□ 금융위기와 갈 길 잃은 농민공

-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건설 노동자, 생산근로자로 ‘민공차오(도시로 직장을 찾아 떠나는 농민공 물결)’를 이끌었던 중국의 농민공(2007년 기준 약 2억2600만 명, 이 중 다른 지역(省) 파견 농민공은 1억2600만 명)은 동부지역의 경영환경 변화와 금융위기로 갈 길을 잃고 있음.

○ 귀향 농민공 증가

- 최근 불어닥친 세계 금융위기의 한파와 최근 몇 년 지속된 동부지역의 자원부족현상, 토지 원가 부담, 임금상승 및 위안화 절상 등으로 인한 수출업체 도산과 생산중단 사태, 임금 체불,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는 농민공이 늘어나고 있음. 이들 농민공은 직장을 새로 구하거나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찾고 있음.



직장 찾아 떠나는 농민공

□ 판상차오(고향으로 돌아가는 물결)와 창업 붐

○ 판상차오와 창업의 원인

-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가 창업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 연해지역 산업(특히, 노동집약형산업)의 중서부지역으로 이전 지속 △ 20, 30대에 고향을 떠난 1세대 농민공의 낙향해 살고자 하는 전통적인 사고 관념이 농후 △ 고향의 각종 자원현황, 인맥관계, 투자환경, 시장정보 등에 비교적 익숙해 창업에 대한 위험 감소 △ 15~20년간 축적된 자본, 습득한 다양한 기술 및 관리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 △ 도농 이원화에 따른 농민공의 도시 안착(호적, 자녀교육, 사회보험 문제 등)이 어렵다는 점 등임.

○ 농민공 귀향 창업의 주요 특징

- 2007년 중국 국무원이 전국 100개 현의 ‘농민공 회향 창업’ 관련 조사에 따르면, 외부파견 농민공의 약 23%가 귀향했으며, 귀향 인원 중 약 16%가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농민공 귀향 창업의 주요 특징은 △ 1세대 농민공 위주 △ 비농업 분야(2차산업 및 3차 산업) 창업 집중 △ 개체호나 사영기업 위주로 소규모 창업 위주 △ 집에서 가장 가까운 소도시에서 창업 및 거주 등으로 나타남.



거위 양식으로 연간 매출 3000만 위안을 올리는 안후이성의 귀향 농민공 땡리추이

○ 농민공 창업, 전국 향진기업의 1/5 차지

-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2억 명이 넘는 농민공 중 약 500만 명의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가 현대 농업·공상기업 등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향진기업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농민공은 약 1억5000만 명임.
- 2007년 농민 및 귀향 농민공이 창업한 향진기업은 약 85만 개로, 이 중 65만 개는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로 약 11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 주요 농민공 노무 파견지역의 현황

○ 쓰촨성

- 쓰촨성은 중국 최대의 외부지역 노무 파견성으로, 2007년까지 파견한 농민공은 2002만 명임. 이 중 다른 성으로의 파견은 1109만 명으로, 노무수입은 1077억 위안에 달함.
- 2008년 5월 12일 발생한 원촨대지진으로 기 파견된 농민공 중 약 60만 명이 지진으로 고향의 가족을 찾기 위해 귀향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지진 재건 및 현지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두시의 인재시장 관리자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농민공 구직자의 비율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힘.
- 청두시 싼뚜구 룡차오진에는 약 40여 개의 아동복 업체가 밀집돼 있으며, 이곳 업체의 대표는 대부분 광둥성 지역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한 농민공들임. 이들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은 5억 위안 이상으로, 현지의 노동력 5000여 명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 허난성

- 중국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허난성(약 9700만 명)은 2007년 기준 약 1974만 명의 농민공을 파견했으며, 2008년에는 2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허난성은 농민공 귀향 창업을 위해 2008년 2월 ‘농민공 귀향 창업 업무 성실 수행에 관한 통지’를 통해 농민공의 귀향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鳳還巢(농민공의 귀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안후이성

- 안후이성의 외부 노무파견 농민공은 약 1000만 명으로, 이 중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한 농민공은 약 70만 명이며 전체 농민공의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안후이성 우웨이현의 외부지역 노무파견 농민공은 1990년대 초부터 대략 40만명에 이르며, 이 중 약 1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들 농민공은 연해 지역에서 배운 기술, 자금 관리, 축적된 자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독자 및 합자, 지분참여방식 등으로 방직의류, 의약화공, 전선케이블 등 약 1200여 개의 기업을 설립했음. 이들이 내는 연간 세금은 3억8000만 위안으로 우웨이현 재정 수입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후난성

- 후난성은 2007년 기준 약 1097만 명에 달하는 농민공이 있으며, 노무수입은 864억3600만 위안에 달함. 이는 후난성 전체 GDP의 9.5%에 달하는 수치임. 주로 장강삼각주, 주장 삼각주 지역에 파견된 농민공은 도산기업의 증가로 귀향 농민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충칭직할시

- 충칭직할시는 농민인구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 유희 노동력 또한 매우 풍부한 지역으로, 농민공은 700만 명에 달함. 충칭시는 이들 농민공의 귀향 창업을 위한 소액담보대출 및 창업스킬, 기업 관리, 인재자원 관리, 인터넷 응용기술 등의 농민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2008년10월 28일 충칭시 정부는 ‘농민공 낙향 창업 지도 및 장려에 관한 의견’을 통해 농민공 창업을 위한 ‘農民工返鄉創業園區’를 건립해, 투자 규모에 따라 무상 및 저가 토지 분양 및 각종 창업 설립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꾸이저우성

- 꾸이저우성 인력자원개발촉진회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 꾸이저우성의 농민공은 약 603만 명으로 노무 수입은 500억 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1%에 해당하는 13만 명이 귀향해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쑤이시의 노동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08년 6월 말 기준 귀향 창업 농민공은 3587명으로 656개 업체가 1만5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년 납세액은 2481만 위안에 달함.

□ 농민공 창업과 농촌 개혁 그리고 문제점

○ 농촌의 공업화와 도시화 수준 제고, 농촌 노동력 흡수

- 농민공의 고향에서의 창업 열풍은 신사고·신기술·신 관리이념 등을 고향으로 가지고 와 현지의 사상 관념 및 생활방식 등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농촌의 공업화 및 도시화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현지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의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는 중국 정부가 정책의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 개혁 및 신 농촌 건설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농민공이 창업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진입 문턱이 낮아 비교적 기술 수준이 낮은 유희 농촌 노동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처럼 농민공 외부 파견은 과거 ‘輸出一人, 致富一家(한 명의 외부 파견이 한 일가를 부유하게 만든다)’에서 농민공 귀향 창업으로 ‘創業一戶, 帶動一方(창업 업체 하나가 한 지역을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지역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농민공 창업 시의 문제점 및 정책 지원

- 농민공이 귀향해 창업하는 기업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규모가 작고 노동 강도가 강하고 기술함량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창업을 위한 법적 지원 정책 부족·농촌 정부의 서비스 의식 부족·용자난·인재난·토지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농민공의 성공적 창업과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토지정책 완화, 농민공 창업자를 위한 기업소득세 혜택 등의 세수 정책, 대출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농민창업 지원 위한 재정정책, 창업 지원 플랫폼, 인재 배양시설 확충 등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음.

□ 시사점

-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중국 경제 발전의 주요 노동력이었던 농민공은 최근 몇 년 동부지역의 투자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환향차오' 현상이 일기 시작했으며,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잇달은 도산과 감원으로 더 많은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음. 이들 농민공은 고향에서 가까운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도시 노동자로서 배운 기술 및 관리 경험, 축적된 자금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등 이제는 농촌 개혁 및 농촌 경제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음.
- 중국 정부 역시 지난 10월 열린 17기 3중전회에서 농촌개혁 추진을 결정하고 농촌개혁 발전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고, 농민공의 창업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
- 농촌의 경제 발전 및 농민의 수입 증가 등으로 농촌 소비의 증가가 이뤄질 것이어서, 우리기업들은 농촌 소비패턴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신화망, 중국망, 사천신문망, 인민일보, 매일경제신문 등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中, 4/4분기 석유화학공업 시장전망

－ 제품가격 하락으로 시장전망 밝지 않아 －

KOTRA 다롄KBC 김우정 과장(yuting95@kotra.or.kr)

□ 석유화학업계 최근 이윤 감소

- 올해 3/4분기까지는 안정적인 성장을 거뒀으나 4/4분기 들어와 이윤이 감소함.
 - － 이윤 감소의 주된 원인은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제품의 가격 하락임.
 - － 석유화학 업계의 이윤폭은 감소했으나, 업계 전체적으로 적자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음.
- 8월 말 실적으로는 전체 이윤이 3693억70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68% 증가했음. 그러나 9월 이후 석유화학 및 화학공업 제품의 가격이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10월 이후에는 가격하락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폭도 매우 커짐.

석유화학공업 주요업종 이윤 규모

업종	이윤(억 위안)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3493.8	54.72
정유업	-1201.8	237억6000만 위안(전년동기 이윤)
화공업	1360.2	31.27
합계	3693.7	3.68

주 : 2008년 8월 말 기준

- － 화학비료, 농약, 염료, 도료, 고무, 플라스틱, 화학섬유, 단량체, 무기 원료, 유기원료 모두 가격이 하락함.
- － 최근 화공제품의 가격은 올해 최고 가격에 비해 20% 이상 떨어졌으며, 석유화학 업계의 이익에 큰 영향을 초래함.

□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 국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음.

-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감소함. 많은 합성용 코발트, 화학섬유, 유기원료 등이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와 중국 시장까지 진입함.
- 그 영향으로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ABS수지 등 합성재료 및 폴리에스테르 절편, 테릴렌 단사, PTA, 에틸렌글리콜, 아크릴 단섬 등 합성섬유원료 생산은 대부분 적자를 보기 시작함.
- 에탄올, 메탄올 등 원유와의 가격차이가 많지 않은 화공제품은 원유 가격의 하락에 따라 제품의 가격도 하락하고 있음.

○ 일부 제품의 지나친 가격폭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임.

- 올 상반기에 유황, 글라이포세이트와 같은 화공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폭 등했다가 최근 수요의 감소에 따라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하락함.
- 유황의 경우 6000위안을 초과했다가 1000위안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글라이포세이트는 10만 위안 이상에서 3만5000위안 이하로 하락함.

○ 수요가 적어지자, 재고물량을 줄이기 위해 저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남.

- 일례로, 염소제품의 수요가 크지 않자 액체 염소의 가격을 대폭 할인해 판매함.

○ 일부 화공제품의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돼 공급초과현상이 발생함.

- MDI, 정제소다, 가성소다, 메탄올 등의 생산량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함. 예를 들어 정제 소다의 경우 올해 새로 증가된 생산량만 300만 톤 이상임. 게다가 대부분 4/4분기에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가격경쟁 외에는 판매 방법이 없는 상황임.

○ 국가 정책에 영향을 받음.

- 올해 9월 1일부터 질소비료 및 합성 암모니아에 대해 150%의 특별 수출관세가 부과됨.

- 10월 1일에서 연말까지는 기타 화학비료 및 화학비료 원료에 대해서도 100%의 특별 수출관세를 징수함.
- 이러한 수출억제정책으로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국내시장의 수요 역시 비수기에 접어들자 최근 요소, 제2인산암모늄, 제1인산암모늄 등의 가격이 크게 하락함.

□ 석유화학공업, 전망은 ‘흐림’

- 4/4분기 원료인 석유 및 메탄 등 원료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제품가격 하락속도에 미치지 못함.
 - 국제 원유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메탄가격 역시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나, 4/4분기는 난방용 에너지의 수요가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큰 하락폭은 기대하기 어려움.
 - 유가가 고점에 있을 때 구매한 경우도 많아 제품가격 하락이 더욱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상품유 가격, 전기가격 상승조정 후 물류비용, 동력비용이 상승했으며 앞으로 하락 가능성은 낮음.
- 재무비용, 관리비용의 증가 부담이 늘어남.
 - 4/4분기 들어와 원유 및 천연고무, 유황 등 자원성 원료의 가격은 하락했으나 재무비용, 관리비용은 오히려 증가함.
 - 특히 신노동법 실시 이후 임금 원가가 크게 증가했으며, 매출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자금의 회전이 느려져 재무부문의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이윤 감소가 업계 전체의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 원유 가격이 안정돼 지난 3분기 큰 적자를 보았던 정유업계가 4/4분기에는 이윤이 늘어나 적자폭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 원유·천연고무·유황 등 자원성 원료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완성품 제조원가를 낮춰 일정부분 손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음.
 - 국가의 화폐 정책의 변화로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 10월

8일 중앙은행이 기준율과 이자율을 동시에 낮춤으로써, 석유화학공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올해 폭설·지진 등 자연재해와 유가 폭등이라는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8월까지의 이윤이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비춰볼 때 석유화학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됐음.

○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4/4분기 석유화학공업의 성장폭을 전년동기대비 약 2%로 보고 있으며, 올해 전체 성장폭은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중국석화신문왕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투자진출 A to Z

중국 합자기업 매각에 따른 분배금 송금

문의)

저희 회사는 중국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난 2002년에 합자기업을 설립하였고 현재 지분 25%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자기업은 IT회사이나 합자기업의 이름으로 중국 A시에 토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은 합자기업이 갖고 있으나 구입대금의 50%는 합자기업에서 지급하고, 50%는 중국측 투자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측 투자회사와 합의하에 중국 합자기업을 다른 중국 회사에 지분100%와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매각 대금 중 저희 회사의 분배금은 얼마를 주장할 수 있는지?
2. 합의된 분배금을 한국으로 정상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
3. 송금할 수 있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매각해서 얼마라도 분배금을 받고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답변)

1. 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지분의 가치는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지분율(25%) 상당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지분양도는 투자철수를 위해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방법으로 양도대금의 본국 송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다 확실한 송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분매매계약서에 매수자가 매매대금의 해외송금을 보증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3.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중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조세협약에 의하면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지분양도를 제외하고는 과세권이 지분소유자의 거주지국에 있으므로 이때는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대상 회사의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인 지분을 모두 중국내자기기업에 매각하게 되면 회사의 신분이 외상투자기업에서 내자기기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 경영기간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에 누렸던 세수우대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칭다오KBC 기업리스크지원데스크 이택곤 고문회계사)

(정리 : 칭다오KBC 황재원, zwhwang@naver.com)

장애인 고용관련 벌금부과에 따른 대응책

문의)

칭다오시 소재 투자기업입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법관련 하여 자사에서는 2005년 초 노동국 통지를 받고 바로 회사 인원대비 장애인 고용률과 맞추어 장애인 3명을 고용(2005년 5월)하여 보험 등 모든 내용을 처리하였습니다.(전임 회계 처리 업무)
2. 금월 칭다오시 산하 현급시인 A시 인민정부로부터 우편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 A. 자사가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2004, 2005, 2006년 분에 대한 벌금(RMB 약75,000)을 추징 한다는 내용 입니다.
- B.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해도 매년 4월 말까지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3. 자사 대응 : 관련 부서에 장애인 급여명세 및 보험료 납부기록을 제시
4. 급여 명세나 기타 서류가 있다고 해도 매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벌금을 징수 한다는 내용 통보

의문점: 자사는 장애인을 고용한 후 매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법이 몰랐다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법이 있다는 어떠한 사실도 통보 받은 바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발생원년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재촉통보를 하거나 1년에 해당하는 벌금 징수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4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제 와서야 감당할 수도 없는 금액을 벌금을 내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동성의 관련 행정법규를 체크해 보니, 규정상으로는 지방세무국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취업보장금은 지방세무국에서 대리징수하고 있으며, 늦게 낼수록 체납금이 발생합니다. 귀사로서는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지만,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정면으로 정부와 싸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일단, 담당자를 찾아 비선으로 타협을 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동성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관리 방법>

제7조 보장금은 매년 징수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매년 7-9월은 전년 1개연도의 보장금 신고 및 징수 기간이다.

2002년 및 이전 연도의 미납부 혹은 부족납부한 보장금에 대해, 여전히 원 징수 대상 단위(회사)는 납부완료의 책임을 진다.

보장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징수된다.

매년 3월말 前,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고용단위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의 장애직공 안배상황>, <재직 장애직공의 인명부> 등 관련자료를 송부한다.

매년 4월말 前, 고용단위는 당지의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의 장애직공 안배상황>, <재직 장애직공의 인명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공이 있는 단위는 재직 장애인직공의 신분증, 장애인증, 임금수령표, 장애인의 사회기본 양로보험참가증명 원본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단위 소재지의 장애인노동취업 서비스기구에 와서, 심의 및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적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단위에 장애인직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 첨부 : 산동성 장애인보장금 징수규정(한중대조판)

(자문 및 자료제공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정리 : 칭다오KBC 황재원, zwhwang@naver.com)

기업 인수 절차

문의)

저희 회사(A社)는 중국 소주에 위치한 공장(B社)과 O.E.M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B사는 최근 급격한 환차손으로 인해 기업파산을 고려중에 있으며 당사(A社)에 공장(B社)인수를 건의 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저희 회사는 현재 이 공장을 자산만 인수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산 목록과 인사관리, 재무관리, 공장관리 그리고 영업관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타당한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부채관계까지 인수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인데 이 외에 저희가 더 신청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2. 만약 이 회사가 파산 신고를 한다면 정부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저희는 이 공장을 인수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3. 공장을 인수 하는데 있어 전 직원들이 70명인데 저희는 20명 정도 밖에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전 사장이 퇴직금을 처리 하고 난 후 새 법인명으로 필요 한 인원만 고용 창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처리 과정에서 중국 노동법에 저촉될 수 있는 주의할 조항이 있는지요.
4. 현 회사의 경영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5. 새로운 법인을 중국에 세우려면 어떤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까?
6.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장기 체류 또는 settle down하는데 필요한 비자 종류를 알려 주십시오
7. 가장 걱정 되는 것은 역시 법적인 문제들인데 중국 공장을 경영 하면서 법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상세히 알려 주십시오

답변)

1. 중국공장의 자산만 인수 할 경우 귀사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타당합니다. 그 외, 아래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 ① 자산 소유권의 소유자(즉 자산이 이 공장의 소유인지, 국유, 집체자산인지 여부 등)
- ② 자산이 저당, 담보로 되었는지 여부 혹은 기타 제3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 ③ 자산이 지재권이 있는지 여부
- ④ 수입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세관의 감독관리를 받고 있는지 여부)
- ⑤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 의견 등

실제로 자산을 인수할 경우 피 인수기업의 고객자원, 판매루트 등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파산청산의 경우 파산기업 소재지 법원에서 개입하여 자산관리자를 지정합니다. 파산청산의 경우 자산관리자가 기업 관리를 담당하며, 기업을 대표하여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사가 이 회사를 인수할 경우 자산관리자 및 채권자와의 회의를 통하여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관리자와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이 기업의 자산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직원처리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불하고, 새로 설립하는 회사가 다시 임용하는 방식은 중국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직원처리과정에서 대부분 직원을 감원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처리방식은 반드시 전체 직원(혹은 노조)의 토론을 거쳐야 하고, 소재지 노동보장국에 신청하고, 노동보장국의 비준을 거쳐 직원감원방안을 진행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공상관리기관을 통해 이 회사의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세무기관을 통해 세수 납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회사가 토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土地及房屋管理기관을 통해 토지 및 부동산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④ 이 회사의 공급상, 바이어를 통해 관련 계약의 이행현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중국에서 설립할 기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서류도 상이하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사업자등록증명)
 - ② 투자기업의 은행자산증명
 - ③ 신설법인의 사업타당성 보고서
 - ④ 신설법인의 정관
 - ⑤ 신설법인의 이사회 성원 위임장
 - ⑥ 신설법인의 이사회 성원 리스트
 - ⑦ 신설법인의 경영장소 임대계약 및 경영장소 사용증명
 - ⑧ 이사회 성원 이력서, 여권 복사본, 사진 등
6. 비자의 경우 중국에 설립된 법인에 근거 바로 장기체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중국은 법제국가로 많은 법률, 법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법률, 국무원법규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규정 및 각 도시별 규장제도도 존재합니다. 통상 많이 사용되는 법률,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경영관련 법률, 법규(회사법, 계약법, 국무원 및 공상행정관리기구의 법규 및 규장제도)
 - ② 노무관련 법률, 법규(노동법, 노동법 실시조례, 노동부 및 소재지 법규 및 규장제도)
 - ③ 세수관련 법률, 법규(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④ 수출입 및 세관관련 법률, 법규
 - ⑤ 환경보호, 건물임대, 토지구매 등 관련 법률, 법규

자료제공 : KOTRA 상하이KBC 고문변호사 유진용(법무법인 해송) /끝/

[공지사항]

kotra



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정부 투자진출 포털사이트
「OIS」 밖에 없습니다!!



정부 · 유관기관의 해외진출정보를 one-stop 서비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T, KIEP 등 31개
해외투자진출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Q&A까지

국가 기본정보에서 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 해외진출에 필요한 단
계별, 국가별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내절차는 물론 국가별 투자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외투자 Q&A](#)에 올려 주세요.

OIS(www.ois.go.kr)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관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구축한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통합포털사이트입니다.